을미년 새해 광주 노부부 두쌍이 던진 희망 메시지

"힘들고 거친 세상 이겨낸 건 가족의 힘"

광주시 남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 사는 김종열(84)·변정순(78)씨 부부. 부부는 올해로 결혼한 지 57년 됐다. 결혼 60주년을 앞둔 오랜 부부 생활에도 이들은 서로 얼굴만 보면 "행복하다"며 웃는다. 나이테같은 주름 사이에 인생의 굴곡이 묻어났다. 하지만 지난 힘든 생활은 함께 삶을 버텨온 추억이라고 했다.

올해로 결혼 57주년을 맞는 김종열(84)·변정순(78)씨 부부가 지난 30일 광주시 남구 자택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웃고 있다.

■ 김종열·변정순씨 부부

고통·설움 차오를 때마다 자녀 얼굴 보며 용기 얻어

이들은 "살면서 어렵고 힘든 게 한 두가지겠냐"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생기는 소소한 행복을 희망의 씨앗으로 여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식 키우며 느끼는 행복, 가족이 함께 여행가 물장구 치고 눈싸움하는 작은 기쁨을 살아가는 비타민으로 삼는다면 그게 희망찬 삶을 이어나가는 원동력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순탄한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니다. 젊었을 때 건강했던 남편이지만 지금 아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TV보는 일, 전화받는 일 말고는 현관문을 열어줄 수도, 혼자서 설 수도 없다. 그는 지금껏 7차례나 수술을 받았다. 지난 1992년 고아원 총무로 근무하던 시절 당한 교통사고로 김씨는 허리 수술을 받았다. 이후 2~3년 간격으로 수술 방을 들락거렸다.

방광, 복사뼈, 치루수술에 2년 전 방광·직장암 수술도 받았다. 힘든 병마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옆에서 지켜준 부인 역할이 컸다.

"이 사람 덕분에 살았습니다. 살아있으니 자식들한테 용돈도 받고, TV도 보고, 그런데 가끔 마누라한테 화도 내요. 착한 아내를 만난 게 행운인데도 말이에요." 김씨는 아내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김씨 부부는 지난 1958년 2월 28일 나주시 남평면에서 혼례를 치른 뒤 올해로 57년째다. 신랑은 스물여덟 되던 해, 신부는 스물두 살이던 해였다.

■ 류기성·임인순씨 부부

가출 아들 귀가 후 삶 변화 음악 봉사하며 세상에 감사

부부는 백운동 단칸방을 잡고 힘든 세상을 함께 이겨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지만 평생 넉넉하지 못한 생활에 울기도 많이 울었다. 세탁소, 문구점 등도 운영해 봤지만 가난을 면하진 못했고 어떻게 살아가야할 지 막막함에 절망도 했었다.

"하루는 성악을 전공한 아들이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왜 우냐 물으니, "엄마 배가 고파서 소리를(노래를) 못 내겠어요."

"큰아들을 끌어안고 온 가족이 펑펑 울었습니다. 아둥바둥해도 가난은 끝나지 않더라구요. 그 아들이 음대 교수가 됐어요" 옛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도 보였다. 하지만 부부는 체념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집에 웃음소리가 많아지면 그 힘으로 버텨냈다고 했다. 고통과 설움이 턱까지 차 오를 때면, 곤히 잠들어 있는 자녀 얼굴을 보며 용기를 냈다. 그래도 힘에 부치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인생의 계단을 올라왔다고 했다. 가족이 있어 뭐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지금도 변치 않는 이들의 생각이다.

올해 결혼 43주년을 맞는 류기성(73)·임인순(67)씨 부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살아왔다.

슬하에 2남 1녀를 둔 부부는 매일 잠들기 전 상대에게 꼭 하는 말이 있다. "여보, 오늘도 당신 덕에 잘~ 살았어요."

부부는 순탄했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로 '이해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들었다.

올해 결혼 43주년을 맞는 류기성(73)·임인순(67)씨 부부가 지난 30일 광산구 자택에서 함께 웃고 있다.

함께 한 40여 년의 세월, 부부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막내아들 사건'으로 꼽았다. 학창시절 유도 선수로 활동했던 막내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뒤 대학 진학도 하지 않고서 가출했던 '사건'이었다. 가출 기간만 3년. 그 시절이 지옥 같은 순간이었다고 떠올렸다.

"교사로 살아온 남편은 원칙주의자였어요. 아들이 조금만 선에서 벗어나면, '자식도 못 가르치는 아비가 선생을 할 순 없다.'라며 학교를 그만두려한 적도 있었어요. 남편은 원칙 준수를 요구했지만, 운동이 뜻대로 되지 않던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해받고 싶고, 격려를 받고 싶어했다는 걸 저희는 늦게 깨달았어요."

연락을 끊고 집을 떠났던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뒤 부부는 아들을 이해하려 애썼다. 이전에는 두 눈 부릅뜨고 아들 행동을 지켜봤다면 그 뒤론 무얼 바라거나 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신 부부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톱과 카우벨(종처럼 생긴 타악기)이라는 다소 생소한 악기를 들고서 양로원과 고아원을 찾아다니며 무료 공연을 연지 10년을 훌쩍 넘겼다. 음악봉사 말고도 틈나는 대로 구청 복지관에서 노인을 상대로 진행하는 '한글반' 선생님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냥. 단지 그냥 세상과 이웃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이 돌아온 것도. 우리 부부가 낳은 3명의 자식이 건강하다는 것도, 우리 부부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란 걸 깨달은 지금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행복입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본보 '대인시장 젊은 CEO들' 보도에 잇단 관심

"청년 상인들에 감동…밥 한끼 하고 싶다"

김성진 영암마트 대표 밝혀

'광주 대인시장의 젊은 CEO들' 보도<광주일보 1일자 10면> 이후 이들에 대한 관심이 잇따르고 있다. 청년 상인의 평균 나이는 30세. 이들은 색종이 도자기·추억의 문방구·퓨전 분식점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대인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광주지역 토종 슈퍼마켓 '영암마트'의 김성진(48) 대표는 청년 상인에게 "꼭 밥 한끼 함께 하면서 이들의 창업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가 스물넷 총각이던 1992년, 30만원짜리 중고 트럭으로 과일 행상을 하면서 10평짜리 구멍가게를 내는 소원을 키웠는데 대인시장 청년 상인이 "마치 내 얘기"같다는 것이다.

특히 김씨도 20대 시절 각화동 농산물시장에서 하역을 하며 오늘날 사업의 바탕을 다졌는데 "요즘 세상에 청년이 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게 기특하다"는 것이 김씨 설명이다.

과일 음료·도시락 가게 '더 푸릇'(The Fruit)의 서수현(여·36) 대표는 "보도가 나간 뒤로 한 방송국 라디오 출연 제의도 받았다"며 "광주시민의 따뜻한 배려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대인시장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아이들이 무슨 죄…안타까운 동반자살 잇따라

보성서도 모녀 숨진 채 발견

경기 침체와 가정 불화 등으로 부모와 함께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잇따르고 있다.

1일 보성경찰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8시께 보성군 벌교읍 태백산맥문학관 인근 공터에서 한모(여·46)씨와 딸(17)이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이 발견됐고 이들 모녀 집에는 유서가 각각 발견됐다. 유서에는 '외삼촌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씨가 재혼한 남편과 잦은 다툼 등 극심한 가정불화로 이혼을 준비해왔다는 주변 진술과 딸이 숨지기 전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외삼촌에게 보낸 점 등을 토대로 이들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9일 밤 9시10분께 광주시 북구 A장례식장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이모(여·35)씨와 딸(9)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미안하다. 나머지 두 딸을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이씨가 2년 전부터 우울증과 협심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점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어린 딸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 지난 22일에는 경찰 B(여·33)씨가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아파트 욕실에서 생후 25일된 아들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구순구개열과 클라인펠터 증후군 등 증상을 앓고 있는 아들의 장애로 괴로워해온 점 등을 바탕으로 함께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족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조현아 동생 현민씨 "반드시 복수" 문자메시지 물의

'땅콩 회항' 사태로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수감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첫날밤을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1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남부구치소에 갇힌 조 전 부사장은 밤을 구치소 신입거실에서 보냈다. 신입거실은 처음 구치소에 수감된 신입 수용자들이 적응 기간을 거치도록 일정 기간 생활하는 방으로, 4~5명 정도가 함께 생활한다.

한편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난 17일께 언니에게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황급히 사과했다. /연합뉴스

식당 화재, 옆 원룸으로 옮겨붙어 10여명 모텔서 새해맞이

쌍나팔

○…영업을 준비하던 식당에서 발생한 불이 바로 옆 원룸 건물까지 옮아붙으면서 입주자 10여 명이 낯선 모텔 등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등 한바탕 소동.

○…1일 광주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9시께 남구 월산동 이모(여·32)씨의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 식당 별관(40㎡)을 태운 데 이어 옆 원룸 건물 벽면(110㎡)이 불에 그슬리는 등 2억 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불길은 30분만에 진화됐지만 연기가 원룸 안까지 들어온 탓에 입주자 일부는 인근 모텔 등에서 새해를 맞이했는데, 출동한 소방관은 "이번 불로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었지만 그나마 다친 사람이 없어서 천만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